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주님과 함께 춤을~~”

1990년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과 감독, 그리고 주연까지 맡았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늑대와 함께 춤을, Dances With Wolves>이란 영화입니다. 1863년 남북전쟁의 한복판인 테네시주 전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인디언들의 삶을 처참히 목살하며 미 서부 개척의 프론티어로 나섰던 주인공은 결국 병사들의 외침으로 인한 탈영으로 인해 미국과 연락이 두절된 채 고립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립된 삶 속에서 늑대와 친구가 되고 인디언 부족 ‘수(Sioux)’족과 접촉하여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수족으로 편향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얻어 새로운 삶을 펼쳐가지만 서부개척의 야망을 품은 당시 백인들의 무차별한 공격에 결국은 주둔지를 내어주고 새로운 삶의 개척을 위해 아내와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장면 중 참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서부개척자의 주된 역할을 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인디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뇌와 갈등,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그 힘듦과 고통을 ‘춤’이라는 것으로 승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아는 선배목사님께서 좋은 책을 몇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책이었구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쓴 몇 권의 책도 리스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들중에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왠지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영어제목에서도 보듯이 ‘나의 신음과 한탄을 춤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나름 기대했기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상실과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이 나에게 마치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한참을 시도하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찾아 넣어 잠긴 문을 열어준 열쇠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춤을 보더라도 ‘춤’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기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춤의 신비는 그 동작이 슬픔 중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한(恨)’을 몸 동작으로 표출한 예술을 통해 소위 ‘해탈, 치유’의 정점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춤은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데서 시작됩니다.

고난과 상실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내의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선용을 구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능한 것은 상실과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크신분의 손에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고난과 아픔이 준비하게 펼쳐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고통이든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더 큰 그리스도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에게 기회를 줘라. 나는 너의 구주요. 인도자요. 친구요. 신랑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던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사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윤예원 전도사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박지웅 집사

헌금찬송.....다같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 장 / 통 468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누가복음 10:1-9 (신약, P. 101)
(Luke 10:1-9)

설교.....임무영 목사
“불편한 편의점’같은 교회”
(Church as a uncanny convenience store)

* 설교후 찬양.....다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축복의 사람)”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2월 한달간 친교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b.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c. 2022년도 생명의 삶(3월) 및 달력 Pick up
- d. 2021년도 Tax 보고를 위한 현금명세서 발급안내 (문의:이재태, 길한나)
- e. 2021년도 재정 감사보고: 2/20(주일), 예배 후 본당
- f. 온라인 현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새벽예배 (로마서 강해 13): 2/19(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시작: 10:30am / 소예배실
- c. 2022년도 전반기 말씀묵상 훈련 3주차: 2/16(수), 7:30pm / Zoom (전체카톡방 참조)
-내용: 사무엘하 (5주과정)
-등록비: \$30.00 (5주 훈련을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는 등록비 100% Refund)

4. 차세대

- a. Youth: Fun Sunday Worship (Valentine Day행사, 2/13 주일)

5.모인 및 모임

- a. 차세대팀: 유치부 교사 (문의: 이은신 전도사, 황은수)
- b. 찬양팀: 싱어(남/여), 악기(베이스 기타) (문의: 심진욱, 이사무엘)
- c. 미디어팀: power point 작동, 카메라 작동 (문의: 이세형, 김정근)
- d. 부활절 칸타타 성가대 모임: 2/13 (주일), 예배 후 본당 (문의: 이신숙)
- e. 구제팀 모임: 2/13 주일 (문의: 송호남)

6.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위경미, 이종필, 한중섭 / 다음주: 윤혜복(송호남)
- b. 다음 주 기도: 이재태
- c. 2월 안내및 현금위원: 배정은, 윤혜복(안내) / 김희태, 김춘희 (현금)

7. 지난 주 출석: 어른(81), 다음세대(20)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등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